

물료예찬 (物療禮贊)

작 대 덕

기회(機會)만 주어 진다면
언제라도 아픔이 편인 것을,
맹세하고 태어나지 않은 처럼,
알고서 덤벼 들지는 않았다.

누구라도 알기만 하고 보기만 하면
어디서든 아픔을 덜을 걸
구태여 이리로 택한 건
숙명(宿命)이기 보다 주님의 뜻 인지도.

아는것 없고 겪은 것 적어도,
인연 있는 이는
모두 다 혼신으로 도와 줄 이라.

실속없이 영화를 포기한 채
그대로 시들어 가도
기회만 주어 진다면
비종교(非宗教)의 순교자로서
봉사(奉仕)를 저버린 현 세대(現世代)에
외로운 등대 지기가 되리라.
정열(情熱)과 한번 뿐인 내 삶을 바치리라.

성 빈센트 병원

◇ 미국에서 온 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면허번호 943번 정영희입니다.
여러번 연락을 드린다는게 늦어졌습니다.

1981년 12월에 미국 유학을 와서 지금까지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는 영주권을 갖고 있으며 이번 84년 가을 학기는 York college of New York city university에 등록을 마쳤습니다. (O.T) 아직은 전공인 Physical therapy과는 못 등록했고 85년 가을 학기에 Hunter college of New York city university에 들어가려 준비 중입니다.

이번 여름방학중에 한국 나갔다가 여러가지 이야기들 들었습니다. 특히 회비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꼭 회비를 내야되는지 얼마를 내야 되는지. (나의 경우)

만약 안내는 경우 면허증이 무효가 되는지.
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곳 사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유학을 꿈꾸시는 분이 계시지 모르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른 주는 잘 모르겠고, New York 주에서.

우선 물리치료가사 가 되려면 타국에서 공부한 것은 전혀 인정치 않고 New York 내 대학을 졸업함으로써 국가고시 자격이 확정됩니다. 특히 우려해야 될 일은 대학 입학이 매우 까다로운 형편입니다. Hunter college의 예를 들자면 먼저 physics(물리), chemistry(화학), biology(생물), 실험 실습과 함께 2학기를 해야 되고, psychology(심리학) 2학기math 1학기가 끝나고 나서 병원

실습 100시간이 끝나야만 Interview를 하게 됩니다. 이 Interview는 Hunter뿐 아니라 모든 학교에서 꼭 필수요로 합니다. (예 Long Island University). Hunter는 시립이고 Long Island University는 사립이며 Hunter 보다 들어가기 쉬운 것 같았습니다. (저의 경우 82년도에 L.I.U. 입학허가서를 받았습니다.)

현 N.Y 시에는 2개 학교밖에 없습니다. 물론 주립은 아마 5개교 정도 있지 싶어요. 하여튼 많은 분들 이더 많은 공부하실 기회가 주어지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한 사람의 물리치료사로서 욕심같아서는 한국에 2년제 학과정이 4년 정도로 되어서 좀더 많이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비록 현재는 멀리 있지만은 기대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서 느낀바로는 2년제라는 한가지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더군다나 전문대학으로 됨으로써 공부하는데 많은 곤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무리 좋지 않은 학교라고 해도 여러 과목을 배우으로써 도움이되나 우리 같은 경우는 다시 1학년 과정부터 시작해야 하나까요.

길게는 늘어놓지 못하겠고,

만약 회원중에 궁금하게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하시면 답장 드리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주소 : Chung, Young Hee
90-27, 149st, # 5 A
Jamaica. N.Y. 1143
U.S.A.

Tel.: 718-523-7467.
area code

또한 부탁은 회보를 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락바랍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정 영 희 올림.

<회답>

우선 회비문제를 말씀드리면,

정영희씨는 1983년부터 1984년도 회비는 1500×3 = 45,000(원)을 납부하시고, 1985년 회비는 반액인 7500(원)만 납부하시면 앞으로 저희 협회에서 발간되는 모든 간행물을 직접 중앙회에서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리치료계층으로 다시 전공을 하시려 할 때, 아마도 KPTA(대한물리치료협회)의 회원증(certification)이 꼭 필요하실 것이고 또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협회는 회원들의 회비에 의해 운영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어떤 특수한 경우에 있는 회원이라도 예외로 대립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고 협회에 보내주신 편지에 감사드립니다. (협회사무국장)

